

[종합]

아트사커 넘어 '가자! 16장으로'

다시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다. 덕 아드보카트 감독과 23인의 태극전사들은 또 다른 '승리의 땅' 독일 라이프치히로 향한다.

4천만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은 그들 앞에는 지구촌을 뒤흔들 기대와 흥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드보카트 감독과 태극전사들은 19일 새벽 4시(이하 한국시간) 옛 동독의 땅 라이프치히 월드컵경기장(젠트랄 슈타디온)에서 '아트사커' 프랑스를 만난다.

지난 13일 독일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프리카의 난쟁' 토고에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거둔 감격이 채 가라앉지 않았지만 태극호의 선원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출격 준비를 마쳤다.

장장 52년만에 거둔 원정 첫 승의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지닌 '레 블뢰' 군단과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태극전사 19일 새벽 4시 프랑스와 격돌 강자앞에서 강해지는 불굴의 정신력 무장 오늘 또다른 '승리의 땅' 라이프치히 입성

를 눈앞에 두고 있다. 프랑스는 '노쇠한 예술 축구'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G조에서 톱시드를 받은 팀이고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이다.

1998년 자국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에 이어 8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프랑스는 이름값만으로는 태극전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현역 은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친 '마에스트로' 지네딘 지단을 비롯, 티에리 앙리, 파트리크 비에라, 클로드 마켈레레, 윌리엄 갈라스, 파비앵 바르테즈 등 선수들의 면면은 투지로 뿔뿔 뚫린 아드보카트 전사

들과 몸값과 인지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축구는 프랑스와 역대전적에서 2전 2패를 당했다. 2001년 5월 대구에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는 참혹한 0-5 대패를 당했다. 당시 한국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에게는 '오대영 사령탑'이라는 오명을 붙여준 참패였다.

하지만 1년 뒤 2002년 5월 한일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는 2-3으로 지기는 했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밑거름을 놓는 계기를 마련했다.

태극전사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자! 앞에서 더 강해지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무장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프랑스는 강하다. 1차전보다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 것이다. 하지만 축구는 항상 0-0에서 시작한다.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태극전사들도 일제히 "프랑스와 해볼만 하다"며 자신감을 충전했다. 아드보카트호는 17일 오후 5시 30분 전세기에 몸을 싣는다. 라이프치히 매리어트 호텔에 여장을 풀고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승전기를 부를 일만 남았다. 한국축구는 프랑스를 상대로 원정 2연승과 함께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짓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드보카트호의 두 번째 전쟁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설

통일 열기 재 확인한 광주 6·15 통일대축전

지난 14일 개막했던 광주 6·15 민족 통일대축전이 어제 막을 내렸다. 조선대 운동장에서 개최됐던 축하공연에는 2만여명의 광주 시민들이 참석해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과시했다. 남북 공동대표들은 폐막연설에서 "겨레의 드높은 통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6·15 공동선언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새겼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인권도시로서의 광주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 빛 고을 광주가 한반도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전진 기지로서 부각된 것은 물론 경제협력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이 첫번째 일정으로 5·18 국립묘지를 참배함에 따라 5·18의 전국화 및 세계화에도 기여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뒀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노벨평화상 수

상자 광주 정상회의와 맞물려 광주는 이제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고흥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6·15 공동선언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한 남북공동수업을 실시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신세대의 통일 의지를 확인했다는 성과가 있다.

반면 북측 민간대표단장의 반 한나라당 발언으로 행사기간 내내 정치권의 반발을 자초한 것과 뜻깊은 통일행사를 반미 행사로 평가절하하려는 보수단체들의 이념공세는 욕의 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통일대축전이 다음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특별상봉과 이달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여당 조선의원들의 비판, 겸허히 수용하라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마저 현 정권의 국정운영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여당 조선의원들이 5·31 지방선거 패인분석과 향후 당 진로를 둘러싸고 난상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했다는 것이 여당 조선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국민은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관심이 있는 반면 청와대는 개혁에만 몰두했다"며 "중산층과 서민 정당을 표방했으니 결과적으로는 구두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개혁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세계 경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경제 정책으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기업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에 몰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5·31 지방선거 참패이후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 내부에서의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기조는 별다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6월 임시국회 연설이 취소된 것도 심상치 않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해 소신을 밝히고 흐트러진 민심 수습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수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취소된 것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권내부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지리한 네 뿔 팽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정국 해법이 아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당내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버시바우대사 20일 DJ 방문 예정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오는 20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미 대사관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버시바우 대사가 김 전대통령을 방문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는 27일부터 3박4일로 예정된 김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전할 메시지를 포함한 자신의 방북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제현안으로 부상한 북한의 미사일 사태와 관련, 신중한 자세를 추구하겠다는 뜻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도 김 전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을 향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버시바우 대사는 앞서 김 전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는데 기여한다면 미국 정부는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남뉴스



노무현 대통령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축사 16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韓-中 하늘길 확 뚫렸다

단계적 항공자유화 합의...운항편수 두배 늘어

교역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기 운항 편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16일 간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항편에 대한 단계적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된 산둥성은 인구 9천500만명(남한 인구의 2배), 면적 15만km(남한 면적의 1.5배)로서 웨이하이, 칭따오, 옌타이, 지난 등 중국 주요도시가 위치해 있다. 삼성, LG 등 1만여개의 국내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양국 교류의 요충지로서 이번 자유화 조치로 양국간 경제·문화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적 자유화 지역인 산둥성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 수준인 신규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 운항횟수 대폭 증대에 합의했다.

여객노선의 경우 서울~삼천, 서울~다롄 등 총 10개 노선 주 80회를 신설하고, 기존 노선중 수요가 많은 서울~베이징, 서울~상하이 등 19개 노선 운항편수를 주 117회 증대시켜 현행 33개 노선 주 204회에서 43개 노선 주 401회로 증대키로 했다. 화물노선도 노선

별 운수권을 통합 운영하고, 중국 내 화물기 운항가능 지점을 현행 7개에서 9개로 늘리며, 운항횟수를 주24회에서 주36회로 늘린다.

이밖에 시범적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된 산둥성은 인구 9천500만명(남한 인구의 2배), 면적 15만km(남한 면적의 1.5배)로서 웨이하이, 칭따오, 옌타이, 지난 등 중국 주요도시가 위치해 있다. 삼성, LG 등 1만여개의 국내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양국 교류의 요충지로서 이번 자유화 조치로 양국간 경제·문화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적 자유화 지역인 산둥성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 수준인 신규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 운항횟수 대폭 증대에 합의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검찰, 이현재 前재경부총리 출국금지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입관련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현재 전 재경부총리를 포함한 금융권 인사들의 계좌 추적이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15일 오전 외환은행 서울 한남동 지점에서 이 전 부총리가 2002년 이 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던 서류와 2003~2004년의 대출금 상환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총리를 나탈자로 출국금지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지만 수사팀이(론스타) 관련자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 전 부총리의 계좌를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번 계좌추적은 전 안관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로부터 2억원을 받고 현대차

그룹 계열사 부채탕감을 금융기관 등에 부탁한 혐의로 이달 14일 구속된 전 재경정계부 금융정책국장인 변양호씨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매각자문을 맡았던 엘리엇트홀딩스 대표 박순경씨와 외환은행 매각실무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전용준씨도 매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박씨와 전씨는 외환은행 매각자문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됐다.

검찰은 인베스트스글로벌 전 대표인 금융브로커 김재복씨의 부실기업 인수 청탁 및 대출 알선 과정에 이 전 부총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14일 구속된 변양호씨와 김재복씨가 이현재 사단 인물로 분류된 점을 중시해 이들과 이 전 부총리의 불법 공모 가능성이 의심해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법원장에 김관재 씨

대법원 고위법관 13명 인사

대법원은 16일 서울고법원장에 박승호(사시 13회) 광주고법원장을 발령하는 등 대법관 후보 제청과 퇴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이달 21일자로 고위법관 13명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임 지법원장 프로필

연구몰두 선비형 법관

김관재
광주지법원장



'고수 법관'이라는 애칭이 붙었을 정도로 연구에 몰두하는 선비형 법관이다.

후배 법관들과 영미법을 감동하며 격의없이 어울릴 정도로 성격이 소탈하다. 19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25년간 광주, 순천 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향토 법관이다.

1995년부터 시작한 해동 검도는 공인 5단. 부인 정은희씨와 2남. ▲강진(52세) ▲서울대 법대 ▲사시 17회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전주 지방법원장

사법행정에도 능력

오세욱
전주지법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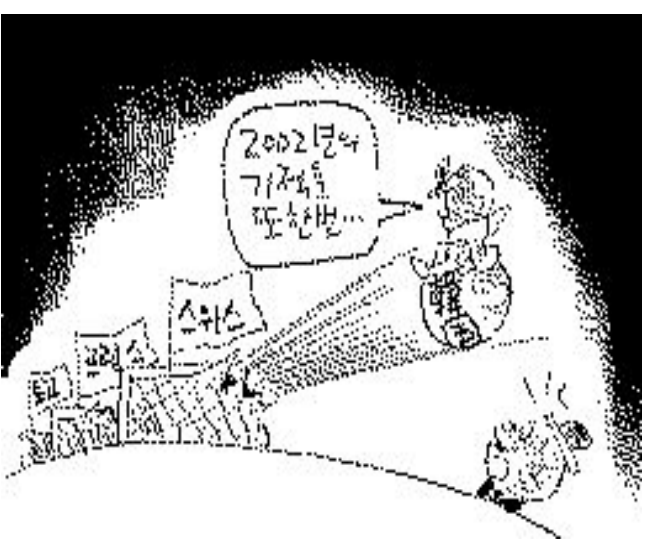
1981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유학 시 절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를 제외하고 광주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법관이다.

순천지방법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는 법관의 재판업무 외에 힘을 쏟은 사법행정에도 능력을 갖췄다는 평. 문화·예술 분야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진숙씨(52)씨와 2남. ▲광주(51세) ▲고려대 법대 ▲사시 18회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우린 물론 아시아의 희망이거든

“호남 민심 이반 대북송금특검·대연정 탕”

우리당 김근태 의장 발언 파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이유로 대북송금사건 특검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추진을 지목하며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우리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선거를 통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호남민심 이반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특검(대북송금사건 특검)을 받아들인 것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추진도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이어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말이 결과적으로 불만 요소

로 작용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 특검과 한나라당의 대연정은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김근태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여기에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말'이라는 대목도 열린우리당보다는 청와대를 지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선 의원들이 지난 15일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점에 대해 김 의장은 "발언하고 토론할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반성과 참회는 다시 일어서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해서는 안된다"며 여권 내부의 갈등을 우려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 김 의장은 "80 노구를 이끌고 이런 행사를 이끌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적 에너지와 투혼이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김 전 대통령의 결단과 투혼에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경 200-271-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